

# “물은 흘러 바다 가고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 44 조계산의 그윽한 역사 선암사

조계산 선암사(仙巖寺).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신을 상징하는 태고종림이 설치된 이 도량은 조계종의 승보종찰 송광사와 함께 조계산을 대표하는 오랜 절입니다. 다른 절에 비해 개발의 손을 덜 탄 곳이라 하여, 고색장연한 맛이 살아 있는 고찰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집의 건축물과 돌담, 연못 등이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데다가 야생차와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의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 선암사를 절집기행의 1번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암사라고 하여 흐르는 세월에 무심할 수는 없나 봅니다. 몇몇의 당우들을 새로 고쳐 짓고 대웅전도 새롭게 중창하려는지 모연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이런저런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주차장에는 대형 버스가 '가자~ 선암사로! 영원한 중생의 도량'이라는 안내 문구를 엮고 리에 끼고 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중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옛 정취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절집의 시계바늘을 붙잡아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암사에는 여전히 고적한 옛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표소에서부터 조붓하게 이어지는 흙길은 승선교(昇仙橋, 보물 제400호)와 강선루(降仙樓)를 지나 도선국사가 조성했다는 연못 삼인당(三印堂)에 이르는 동안 바쁘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선암사의 부도들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옛 스승들의 소리 없는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암사에는 3곳의 부도밭이 있고 홀로 선 부도 3기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200m쯤 오른 곳에 공터가 있고 그 우측에 근래 새로 조성된 부도밭이 있습니다. 태고종의 중정을 지낸 백암 스님, 덕암 스님 등의 부도와 탐비가 서 있습니다. 아직 빈 터가 넓은데 그곳은 앞으로 임철학 고승들의 영골이 모셔지게 될 겁니다.

다시 절로 오르는 길을 걷다보면 동부도전이 나옵니다. 뒤로 울울한 숲이 병풍처럼 에워싼 동부도전에는 11기의 부도가 서 있고 그 앞에 9기의 탐비가 엮여놓은 크기로 서 있습니다. 부도는 대부분 오륜형으로 기단석 위에 고임돌을 받쳐 둥그런 몸통을 올렸고 그 위에 보륜과 보주를 하나의 돌로 조각한 옥개석을 올렸습니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조성된 양식입니다.

이 동부도전은 조선 중기 이후 선암사를 변장시킨 고승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관봉당, 무암당, 성파당, 낙향당, 서약당, 상월당, 침광당, 해봉당, 놀암당, 연암당 등의 글자들이 부도의 몸통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잃어버



선암사 동부도전 전경

리고 낡은 이름표를 달고 서 있는 부도들이 웬지 모를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동부도전에서 옛 스승들의 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침광당(枕光堂, 1616~1684) 현변(懸辯) 스님의 부도는 140cm 정도로 키가 작는데 그나마 받침돌이 기울어 웅장한 모양을 하고 맨 뒷줄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침광당은 소요태능의 선법을 계승한 선승으로 서산대사의 손자輩입니다. 서산의 선교회통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은 침광당은 유교와 도교 서예에도 달통한 능력을 보였으며 당대의 최고학자인 고산 윤선도가 환속시켜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전합니다. 스님은 고산 앞에서 울면서 환속을 거부했다니 그 불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암사 주지를 지내며 중창불사를 활발하게 주도하기도 했던 침광당의 글들이 1695년 목판본 <침광집> 2권 1책으로 선암사에서 간행됐습니다.

부도와 비문이 함께 남아 있는 상월새봉(霜月蟹封, 1687~1767) 스님은 선교양종도총섭국립대사에 임명되리만큼 당대를 대표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영조 10년과 30년 선암사에서 대대적인 화엄경 강회(講會)를 열었는데 이 법석에 종사 158명, 학인 519명, 아산 69명, 동자 74명 등 1287명의 대중이 모였다는 기록이 <해주록>에 전합니다. 상월당은 임종을 맞아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태연하게 저쪽의 세계로 떠났다고 합니다.

놀암식환(訥庵識幻, 1752~1830) 스님은 가난한 양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양반집에서 매를 맞고 왔는데 그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에 양반집을 찾아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장부로 태어나서 비굴하게 사느니 나비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겠느냐’며 머리를 쥐고 막물 웃을 일었습니다. 이렇게

출간한 곳이 선암사였고 전국의 여러 산을 다니며 두루 선지식을 참방하였습니다. 묘향산에서 홀로 정진할 때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3년을 보필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때 평안감사 윤사국이 스승으로 받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조의 후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스님의 기도 끝에 후일 순조가 된 세자가 태어나자 정조는 국일도대선사대각등계홍제존자의 첩자와 자수가사 등 귀한 물품을 하사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순조는 ‘대복전’ ‘천’ ‘인’ 등을 쓴 어필을 하사해 원통전에 현판으로 걸었고 그 현판은 지금도 선암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명대선(涵溟大先, 1824~1902)에서 경봉익운(景鵬益運, 1836~1915)을 거쳐 경운원기(擎雲元奇 1852~1936)로 이어진 교학의 맥(강백)은 금봉기림(錦峯基林, 1869~1916)에 전해졌습니다. 금봉당은 호남 근대불교의 강맥을 이은 학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913년 선암사 주지를 맡아 총림의 일들을 주관하고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48세로 임직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니 세연(世緣)의 빠르고 더딘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동부도전 왼쪽 앞쪽에 독특한 모양의 부도가 있습니다. 기단석 위에 네 마리의 사자가 앞뒤로 두 마리씩 앉아 있고 머리 위에 화려한 받침돌을 얹었습니다. 그 위에 3층 석탑을 올렸는데 균형미라든가 조형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화산대사 사리

탑’이라고 써져 있는데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구례 화엄사 4사지3층 석탑(국보 제38호)과 월악산의 사자비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을 본 때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동부도전을 지나 경내를 참배하고 나면 보물로 지정된 부도 3기를 차례로 찾아가 볼 차례입니다.

먼저 동부도(보물 제1185호)를 찾아갑니다. 한 때 ‘무우전부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고적도보>에 그렇게 소개됐지만 무우전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동부도는 매화같이 화사한 무우전을 지나 야생 차밭이 끝나는 곳에서 개울을 건너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버려진 듯 피적이 라도 나온 듯 홀로 서 있는 동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신라 부도 전형입니다. 옥개석의 귀퉁이 좀 떨어져 나갔지만 매우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3.3m로 탑신에 비해 다소 크게 느껴지는 옥개석이 부도의 장엄을 역설하는 듯합니다. 아도화상의 부도라고 하지만 그가 활약했던 6세기는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오기 전이라 부도가 조성되지 않을 때였으니 신빙성이 없습니다.

동부도를 만나기 위해 건넌 개울을 다시 건너 계곡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북부도(보물 제1184호)가 세월과는 무관하다는 듯 홀로 서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부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역시 믿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말일 뿐입니다. 팔각원당형의 전형으로 높이 2.51m인 북부도는 매우 당찬 느낌입니다. 높이에 비해 하대석에서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석재들의 품이 넓고 모양도 화려하면서 고졸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묵직합니다.

선암사의 3부도 중 나머지 하나는 대각암 뒤뜰의 석단 위에 있습니다. 선암사에서 서쪽능선으로 600m 가량 올라간 곳에 대각암이 있습니다. 역시 주인을 알지 못해 대각암부도(보물 제1117호)라고 부르는데 암자의 이름에서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천(義天, 1055~1101) 스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 천태종의 개창자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선암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려 불교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대각국사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라서 11세에 출가하여 경윤론을 두루 섭렵했고 유교의 전적과 역사서까지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중국을 다녀와 흥왕사 주지로 있을 때 중국에서 가져 온 3000여 권의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 교장도감(校藏都監)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런 대각국사의 행장에서 스님이 선암사에 머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스님들이 두루 배출되고 조선조까지 불교전적들이 꾸준히 간행되는 등 선암사 역사에 대각국사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선암사는 대각국사 다례제를 성대히 올리며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각암부도가 대각국사의 것이라고 단언할 자료는 없습니다. 대각국사가 대각암에서 지관(止觀)을 닦으며 절의 중창을 도왔을 것이란 개인성 속에 이 부도의 주인 역시 대각국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선암사 서부도전은 송광사로 넘어가는 골목재 가는 길옆에 있습니다. 모두 12기의 부도가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부분 석종의 몸통에 새겨진 이름을 읽을 수 있지만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수행자의 한 생애가 뒷사람들에게 망각되는 것도(道)의 한 부분일까요? 하는 생각으로 경내를 벗어납니다. 경내 곳곳에 부도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암사는 큰 산의 큰절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글 사진·임연태 (사진 본지는설취원)



동부도의 상륜부

## 보물로 지정된 ‘선암사 3부도’ 조형성 탁월한 ‘명품’ 동부도전에 조선중기 이후 선암사 주역들 체취 가득

##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어 발복이 안되는 것이라”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임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



###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흥분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며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기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 백초귀장술

## 조상을 제대로 범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집안동토탈 알아내는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법

###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귀신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비법

베스트 셀러 진입

상하 각권 120,000원

百超律歷學堂

입금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02) 3667-4446  
계좌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10-3813-4443